

## 황룡사 강경법회

### 신라 강경법회의 유형과 관련하여

Buddhist Lecture Meeting in Hwangnyongsa Temple In Relation to Two Type of Buddhist Lecture Meeting in Silla Dynasty

---

저자

(Authors)

Kim, Bok-Soon

출처

(Source)

[한국사학보 \(67\)](#), 2017.5, 143-177(35 pages)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67\)](#), 2017.5, 143-177(35 pages)

발행처

(Publisher)

[고려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81045>

APA Style

(2017). 황룡사 강경법회. 한국사학보(67), 143-17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서관  
183.106.106.\*\*\*  
2021/07/11 15:5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황룡사 강경법회\*

## -신라 강경법회의 유형과 관련하여-

金福順\*\*

1. 머리말
2. 황룡사 강경법회의 사례
3. 황룡사 강경법회의 준비와 진행
4. 신라 강경법회의 유형과 황룡사 강경법회의 변화
5. 맺음말

### 〈국문초록〉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대에 창건(553)되어 고려 후기 몽고의 침략으로 1238년 전소되기까지 685년간 존속하면서 강당에서 수많은 강경법회가 개최되었다. 신라 황룡사는 왕경의 국찰로서 국가 규모의 강경법회를 개최하였고 원광, 자장, 원효에 의한 강경 기

\* 이 글은 황룡사복원 제4차 심화연구 중 강당의례의 일부로 연구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2015년 동국대학교 DG선진연구강화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 2010, 「최치원의 역사인식 연구」, 『민족문화』 34 ; 2010,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 36 ; 2014, 「경주 쾌릉의 문헌적 고찰」, 『신라문화』 44 ; 2015, 「삼국유사 무장사 미타전조의 몇 가지 검토」,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6 ; 2015, 「의정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과 신라인」, 『신라문화』 45, 신라문화연구소 ; 2016, 「『삼국유사』 권3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조의 연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7 ; 2016, 「서유구의 『교인계원필경집서』와 최치원연구」, 『한국사학보』 63, 고려사학회 ; 2016, 『최치원의 역사인식과 신라문화』, 경인문화사 ; 2016, 『신라 사상사 연구』, 경인문화사.

록이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황룡사 강경법회의 사례를 각 왕대 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황룡사 강경법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내용이다. 준비는 텍스트로서의 경전을 정하고, 국왕의 치병, 국태민안 등의 목적을 분명히 한 후, 강사를 선정하여 강경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 참석대상을 확정하고 황룡사 강당 내지 마당에 천막을 쳐서 장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강경일의 택일과 사부대중의 참석 권유, 유나승과 식순을 확정지은 후 강경법회를 식순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라 강경법회의 유형과 변화이다. 황룡사와 같은 국찰에서는 국왕과 대신 등을 위해 강경안이 마련되었으나, 의상이나 승전 등의 강경법회는 강경 후 제자들이 강의안을 작성하고 있어, 실로 두 유형의 강경법회가 존재하였음이 보인다. 또한 신라 황룡사 강경법회는 교종승에 의해 주도된 국가 규모의 강경법회가 그 모습에서 점차 형식화되어 가다가, 신라 말 선종의 영향으로 선교통설(禪敎通說)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 1. 머리말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대에 창건(553)되어 고려 후기 몽고의 침략으로 1238년 전소되기까지 685년간 존속하면서 강당에서 수많은 법회가 개최되었다.

신라시대의 황룡사는 왕경의 국찰이라는 위상을 지니면서, 백고좌회 등 국가 규모의 강경법회가 개최되었는데 원광, 자장, 원효 등의 고승에 의한 강경 기록이 남아있다. 본 연구는 황룡사에서 이루어진 강경법회의 전모를 규명해 보고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2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경법회의 사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신라 황룡사 강경법회의 준비와 진행을 살펴보려 한다. 황룡사 강경법회는 국왕과 대신들이 참석한 법회로서 여러 준비 사항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그 진행에 있어서는 회창 연간(841~846) 당시 산동의 적산법화원에서 행해지던 강경회의 모습과 같았을 것이나, 국왕이 참석한 법회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신라 강경법회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신라 강경법회는 아도에 의한 모례가에서 비롯되어 수없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황룡사와 같은 국찰의 강경법회에서는 국왕과 대신 등을 위해 강경

안을 작성하여 준비하고 있고, 일반 고승들인 의상이나 승전 등은 강경법회 후 제자들에게 의해 강의안이 작성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신라 강경법회를 두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이와 함께 신라 황룡사 강경법회가 신라 말에 이르러 나타나는 변화상도 추구해 보고자 한다.

## 2. 황룡사 강경법회의 사례

황룡사는 국찰이었으므로 강경법회도 국왕과 왕실, 대신 등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황룡사 강경법회의 사례를 각 왕대 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진흥왕대의 백좌강회(百座講會)<sup>1)</sup>

이 백좌강회는 혜량법사의 주도로 황룡사에서 개최된 최초의 강경법회이다. 혜량은 이미 고구려에서 강경법회를 열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신라에 망명하여 새로이 법회를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었다.<sup>2)</sup> 진흥왕은 왕 11년(550)에 안장(安藏)법사를 대서성(大書省)에 임명하고,<sup>3)</sup> 이듬해 신라로 망명한 고구려의 혜량을 승통에 임명하였다. 혜량이 551년에 승통에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황룡사의 공사는 553년(진흥왕 14)부터 시작하여 566년(진흥왕 27)에 완공되었다.<sup>4)</sup> 혜량은 신라에서 백고좌회나 팔관회와 같은

1) 백좌강회는 백고좌법회, 백좌도량, 백좌법회, 인왕회, 인왕도량으로 다양한 호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왕경』을 주요 텍스트로 하는 100명의 고승이 참여한 법회인 까닭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기백, 1978, 「황룡사와 그 시대」, 『신라시대 국가불교와 유교』, 韓國研究院 : 김복순, 2010,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 36 참조.

2) 『삼국사기』 권44, 열전 거칠부. 신라의 거칠부는 고구려를 정찰하려고 고구려 땅에 들어갔다가 법사 혜량이 강당을 열고 경을 강설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나아가 강경을 들었다. 외국의 승려가 고구려승 혜량의 법회에 참석하였다는 것은 이 강경법회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증거로 당시 고구려에는 대중적인 강경법회가 개설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3) 『삼국유사』 권4, 자장정류.

4) 『해동고승전』 권1, 법운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27년.

거국적인 법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북위 태극전 형태의 영령사와 같은 거대 국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sup>5)</sup> 신라 왕경에 건설 중이던 왕궁을 황룡사로 바꾸는데 브레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룡사가 준성되기 전 해인 565년에 진나라에서 불교의 경론을 1700여 권을 보내왔는데,<sup>6)</sup> 이는 황룡사의 낙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신라의 백좌강회는 황룡사 낙성을 기념하여 국가발전의 기원을 담아 혜량이 신라의 승통(僧統)으로서 최초로 설행(設行)시킨 법회이다.<sup>7)</sup>

## 2) 진평왕대의 강경법회<sup>8)</sup>

진평왕 35년(613) 7월 황룡사에서 원광을 상수(上首)로 하는 백고좌법회가 개설되었다. 수나라 사신 왕세외가 신라에 내방하여 개최된 법회였다. 진평왕 30년(608)에 원광이 쓴 결사표(乞師表)를 보낸데 이어, 진평왕 33년(611)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청하자 이에 대한 답으로 수나라 사신이 음으로써 개최된 법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612년 고구려 침공에 실패한 수나라가 신라의 이탈을 막기 위해 파견한 사신이었다. 이에 신라에서는 원광을 상수(上首)로 하는 호국법회를 개최하였는데,<sup>9)</sup> 이 인왕백고좌법회는 국가의 대외발전을 위한 전쟁과 관련이 있는 법회에 속한다. 한편 원광은 이에 앞서 해마다 2차례 『섭대승론』으로 추정되는 대승경전을 강론하였는데, 이도 강경법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5) 양정석, 2000, 「신라 황룡사·북위 영녕사 그리고 일본 대관대사-5-7세기 동아시아 도성제와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9, 49~51쪽.

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26년.

7) 『삼국사기』 권44, 열전 거칠부 : 『삼국유사』 권3, 황룡사장유에 의하면, 기축년(569)에 끝냈다고도 한다.

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평왕 35·36년 :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

9) 김복순, 2006, 「수·당의 교체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43, 172~176쪽.

10)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 원안(圓安)이 일찍이 원광의 사실을 적기름, 본국 왕이 병이 들어 치료하여도 낫지 않으므로 원광을 청하여 궁중에 들어와 따로 있게 하고 밤에 두 차례로 심오한 법을 설하게 하고 껌을 받아 참회하게 하니 왕이 크게 신봉하였다 ... 원광이 진한마한 사이에 활발히 정법을 통론(通論)하고 매번 두 번 강하여 후학을 육성하고, 보시 받는 것은 모두 사찰경영에 충당하니 남은 것은 오직

### 3) 선덕여왕대의 강경법회

선덕여왕의 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황룡사에 백고좌를 베풀고 승려들을 모아 『인왕경』을 강설하게 하였고, 100여 명의 승려에게 도침을 준 강경법회이다.<sup>11)</sup> 이 법회는 원효가 100명의 법사가 추천될 때 제외된 바로 그 법회였다.<sup>12)</sup> 선덕여왕 대에 황룡사의 사주(寺主)로서 환희사, 자장, 혜훈, 상율사 등이 나오고 있는데,<sup>13)</sup> 이들이 주도세력을 맡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자장은 당나라에 유학하였다가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대국통으로 분황사 정원(精院)에 거주하면서<sup>14)</sup> 황룡사의 사주에 취임하고 강경법회를 주도하였다. 자장은 궁중에서 여름동안 『섭대승론』을, 황룡사에서는 『보살계본』을 강연하였다. 그가 황룡사 강당에서 7일 밤낮으로 『보살계본』을 설하자 그 감동이 이적(異蹟)으로 나타나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구름 안개가 끼어 강당을 덮었다고 한다.<sup>15)</sup> 그는 이미 자기 집을 고쳐 사찰로 만든 원녕사 낙성회때 『화엄경』 1만 계를 설한 바 있다.

자장과 오대산 관련 기록은 신라 하대에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자장이 중국 유학 당시 오대산에서 만난 신인으로부터 들었던 기록에서 가섭불연좌석이 석가모니와 과거불인 가섭불이 강연하던 것으로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sup>16)</sup> 주목되는 것은 황룡사 연좌석의 용도가 석가모니와 가섭불이 강연하던 곳을 상징하는 지표라는 것이다. 현세불과 전세불이 강연하던 곳에 세워진 황룡사에서는 신라시대에도 역시 수많은 강경이 행해진 것이 설화 형식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의복과 식기뿐이었다【달함(達函)에 실려 있다】.

- 1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선덕왕 5년.
- 12) 『송고승전』 권4, 신라국 황룡사 원효(大正藏 50, 730쪽 상·중).
- 13) 『삼국유사』 권3, 황룡사장유.
- 14) 김복순, 2016, 「자장의 분황사 주석과 구황동 원지」, 『원효학연구』 21, 14~24쪽.
- 15) 『삼국유사』 권4, 자장정릉.
- 16) 『삼국유사』 권3, 황룡사장유, “汝國皇龍寺 乃釋迦與迦葉佛講演之地 宴坐石猶在”.

## 4) 문무왕대의 황룡사 강경법회

신라는 나당연합군을 편성하여 백제를 멸하고 다시 고구려를 멸한 후, 당나라와 전쟁을 치렀지만, 국찰인 황룡사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거국적인 법회를 개최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문무왕대에 나당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벌어진 명랑의 문두루비법의 시설로 사천왕사가 여러 번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sup>17)</sup> 이렇게 신라 중대에 황룡사는 『삼국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삼국유사』와 고승전에는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그 사례가 전하고 있다.

문무왕대 황룡사의 강경법회는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을 강한 법회이다.

먼저 그 배경을 보자면, “왕비 머리에 중기가 났는데, 의사의 노력에도 효험이 없었다. 왕과 왕자 그리고 신하들이 산천의 영험한 사당에 기도하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무당이 말하기를, “다른 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약을 구해야만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사자를 보내어 백길로 당나라에 들어가 의술을 구하게 하였다. 남쪽 큰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문득 한 노인이 과도를 헤치고 나타나 배 위로 뛰어 올라와서는 사자를 맞아 바다로 들어갔다. 바라보니 궁전이 장엄하고 화려하였다. 용왕을 알현하였는데 이름은 검해(鈐海)였다. 사자더러 이르기를, “너희 나라 왕비는 청제(靑帝)의 셋째 딸이다. 우리 궁중에 『금강삼매경』이 있으니, 이각(二覺)이 원통하고 보살행을 보여준다. 이제 왕비의 병을 인연삼아 이 경전을 부촉하노니, 너희 나라로 가서 유포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위의 사료를 통해 두 가지 점에서 이 강경법회의 시기를 선덕과 진덕여왕을 지나서 문무왕대로 확정지을 수 있다.<sup>18)</sup> 첫째는 사료에 나오는 왕비의 존재이다. 원효는 신문왕 6년(686)까지 생존해 있어서 문무왕대와 신문왕 대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 법회에서 자신이 선덕여왕 대 백고좌법회에

17)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9년 ; 권38, 지 직관지 상 ; 『삼국유사』 권2, 선덕왕 지기삼사 ; 문호왕법민 ; 경명왕 ; 권5, 월명사도술가.

18) 남동신, 1999, 「원효와 분황사 관계의 사적 추이」, 『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 논문집』 20,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87쪽. 원효가 거사신분으로 분황사에 머물게 된 것은 중대 왕실의 힘으로 보고 있다.

강사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sup>19)</sup> 신문왕대보다는 문무왕대라 하겠다. 두 번째는 원효가 이 경을 받은 곳은 그의 고향 상주였는데 이 경을 강한 것을 계기로 중앙에서 활약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원효는 문무왕대에 암호해독 등 김유신과의 공조로 그 활약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671년 『판비랑론』을 저술하여 당나라 현장(玄奘)의 논리에 당당히 맞서기도 하였다.

이때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을 설한 강경법회는 그 전말이 상세히 전하는 까닭에 강경법회의 복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의 황룡사 강경법회의 복원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 5) 성덕왕대의 인왕도량

성덕왕대에는 황룡사탑의 낙뢰기사와 인왕도량 개설 기사가 나온다. 즉 『삼국사기』에는 “성덕왕 17년(718) 6월에 황룡사탑에 낙뢰(落雷)가 있었다.”고 하고 『삼국유사』에서는 “제33대 성덕왕 경신년(19년, 720)에 재건되었다”고 나온다.<sup>20)</sup> 또한 『삼국유사』에는 성덕왕이 7일 동안 인왕도량을 베풀고 죄인을 크게 사면한 기사도 나온다.<sup>21)</sup>

『삼국유사』에 나오는 인왕도량 개최는 앞서 나오는 봉덕사 낙성기사와 관련지어 보기도 하나, 인왕도량의 개최 규모가 황룡사 외에 다른 곳에서 행할 수 없었던 특성을 고려해 보면 황룡사에서의 개최가 타당하다. 이렇게 황룡사탑의 낙뢰와 중수, 인왕도량의 개설이라는 두 사실을 호국이라는 아이콘으로 서로 연관지어 본다면, 성덕왕대에는 황룡사탑 재건 후 중수기념으로 베풀어진 인왕도량에서 『인왕경』을 텍스트로 한 강경법회가 열렸

19) 『송고승전』 권4, 신라국 황룡사 원효(大正藏50, 730쪽 상-중).

20) 『삼국유사』 권3, 황룡사구층탑. 성덕왕 기사에 앞서 “또 국사와 寺中古記에 의하면 32대 효소왕 즉위 7년인 聖曆 元年 戊戌(698) 6월에 벼락을 맞았고【사중고기에 성덕왕대라 한 것은 잘못이다. 성덕왕대에는 무술이 없다】”고 하여 효소왕 7년에 무술에 황룡사탑이 벼락을 맞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재건 기사와 연관 지어 보면 성덕왕 17년의 낙뢰 기사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1) 『삼국유사』 권2, 성덕왕. “왕이 태종대왕을 위하여 봉덕사를 세웠다. 7일 동안 인왕도량을 설치하고 모든 죄인을 사면했다. 이때부터 비로소 시중의 관직을 두었다”는 기사이다.

다고 하겠다.<sup>22)</sup>

## 6) 경덕왕대 황룡사의 『화엄경』 강경법회

경덕왕 대에는 대표적인 강경법회로 태현이 궁중에서 『금광명경』을 강  
한 법회가 있었고, 해를 넘겨서 법해가 황룡사에서 『화엄경』을 강한 법회  
가 있었다.<sup>23)</sup>

전자는 신라 유가불교의 조(祖)로 불리는 대덕 태현이 경덕왕 12년  
(753)에 가뭄으로 인하여 내전에서 『금광경(金光經)』(『금광명경』)을 강  
하여 단비를 빌었으나, 정수(淨水)를 늦게 올리므로 낮에 강(講)할 때 향  
로를 받들고 잠자코 있었더니 얼마 안 되어 우물물이 솟아나와 높이가 7  
장 가량으로 찰당(刹幢)과 같아지매 궁중이 모두 놀라 그 우물을 금광정  
이라 한 사건이다.

후자는 경덕왕이 왕 13년 갑오(754) 여름에 대덕 법해를 황룡사에 청하  
여 『화엄경』을 강하게 하고 왕이 친히 가서 행향한 것이다. “경덕왕은 전  
년 여름에 태현법사가 『금광경』을 강하여 우물물이 7장이나 솟았는데 그  
때의 법도가 어떠하냐고 물으니, 법해는 아주 작은 것을 무얼 그리 칭찬하  
시냐고 답하면서 곧 창해를 기울여 동악을 잠기게 하고 서울을 표류시키겠  
다고 하자 왕은 믿지 않고 희롱하는 말로 여기었다. 그 날 오시에 법해가  
강할 때에 향로를 당기어 잠자코 있더니 얼마 안 되어 내궁에서 갑자기 곡  
을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리고 관리가 뛰어나와 동지(東池)가 이미 넘어 내  
전 50여 간이 표류하였다고 하니 왕이 망연자실하였다. 법해가 웃으며 동  
해를 기울이고자 하여 먼저 수맥을 불리었을 뿐이라고 하니 왕이 부지중에  
일어나 절을 하였는데, 다음날 감은사에서 보고하기를 어제 오시에 해수가  
넘쳐 불전계단 앞까지 들어 왔다가 저녁 때 물러갔다 하므로 왕이 더욱 믿  
고 공경하였다”고 한 사건이다.

경덕왕 대에는 황룡사와 관련된 여러 불사(佛事)와 승려들이 등장한다.  
연기(緣起)와 법해로 대표되는 황룡사 화엄 승의 활동으로, 경덕왕 13년을

22) 이병희, 2004, 「고려시기 낙성행사의 設行」, 『문화사학』 21, 606쪽. 고려 때의 예이  
지만 대부분의 낙성행사 때 강경을 위한 소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23) 『삼국유사』 권4, 현유가 해화엄.

중심으로 한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우선 황룡사종이 경덕왕 13년에 조성되고 있는데, 그 시주는 출궁당한 경덕왕의 선비(先妃) 삼모부인 측의 후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삼모부인, 효정이간, 김웅, 김양상 등이 그들의 세력 회복을 위해 황룡사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속을 이룬 것이다.<sup>24)</sup> 이 때 새로 조성된 종을 안치하기 위해 황룡사에 종루와 경루를 새로 지으면서 노후화된 금당도 보수하고 이를 계기로 솔거를 시켜 노송도를 벽에 그려 넣게 하였다.<sup>25)</sup>

다음으로 법해가 대내에서 『화엄경』을 강한 것도 경덕왕 13년의 일이며, 연기가 80『화엄경』사경을 한 것도 경덕왕 13년에서 14년까지였다. 연기는 「80화엄」의 일부를 무진주와 완산주 지방 사람들을 동원하여 6개월 여에 걸쳐 사경작업을 하였고 지리산에 화엄사를 창건하였다. 연기의 저술인 『화엄진류환원낙도(華嚴眞流還源樂圖)』(1권), 『화엄경요결(華嚴經要訣)』(12권), 『화엄개종결의(華嚴開宗決疑)』(30권), 『대승기신론주강(大乘起信論珠綱)』(3권), 『대승기신론습번취묘(大乘起信論拾繁妙)』(1권) 등은 그가 주도한 사경의 내용으로 볼 때 「80화엄」과 관련된 주석서들로 보인다. 고려시대 의천은 연기에 대해 위론(偉論)인 『대승기신론』과 용경(雄經)인 『화엄경』을 홍호(弘護)하였다고 칭송한 바 있다.<sup>26)</sup> 이를 종합해 보면 법해가 황룡사에서 강경한 것은 「80화엄」임을 알려준다.

## 7) 혜공왕대의 백좌법회

혜공왕 대에는 4년(768) 6월 서울에 우레가 치고 우박이 와서 조목을

24) 김복순, 1990, 『신라 화엄종연구』, 민족사, 80쪽.

25) 안휘준, 2012, 「率居: 그의 신분, 활동연대, 화풍」, 『미술사학연구』 274, 17쪽; 『삼국사기』 권48, 솔거전에 나오는 분황사 관음보살과 진주 단속사 유마상이 그의 작품인 것이 이 시기를 추정할 결정적 요인이다. 솔거는 석굴암과 불국사가 조영되던 8세기 중엽 통일신라 문화의 절정기에 당대 최고의 서예가 김생(711~791)과 사회계의 쌍벽을 이루며 활동했던 전채서(典彩署)의 화원(畫員)으로 보고 있다.

26) 『한국불교전서』 4, 559쪽中 “華嚴寺禮緣起祖師影 偉論雄經罔不通 一生弘護有深功 三千義學分燈後 圓教宗風滿海東”. 김복순, 1990, 앞의 책, 58쪽, 의천은 중국 화엄종의 제4조인 청량징관이 80화엄을 주석한 『화엄경소』를 『청량대소(淸涼大疏)』라고 할 정도였다.

해치고, 또 큰 벌이 황룡사 남쪽에 떨어졌으며, 뇌성과 같은 지진이 있고, 샘과 우물이 모두 마르고 범이 궁중에 들어온 일까지 있었던 사실을<sup>27)</sup> 필두로 해서 수많은 반란이 반복되고 나서 결국 왕경에 2차례 큰 지진이 있었고, 해공왕 15년(779)에는 지진으로 백성들의 가옥이 무너지고 죽은 이가 100명이나 되었으므로, 왕이 백좌법회를 열었다.<sup>28)</sup> 황룡사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국난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정황상 이 백좌법회는 황룡사에서 개최되었을 것이다.

### 8) 원성왕대의 강경법회

신라 하대에는 황룡사가 성전을 갖춘 사원으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원성왕과 경문왕가의 왕들이 황룡사에 친행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기도 하다.

원성왕대의 사례로, “원성왕이 하루는 황룡사승 지해(智海)를 대궐로 청해 50일간 『화엄경』을 강하게 하였다”<sup>29)</sup>는 기록이 보인다. 황룡사승이 대궐에서 강경법회를 한 예로, 황룡사에서 행한 강경법회는 아니지만, 50일이라는 기간이 명시되고, 황룡사승이 강사를 하였으므로 참고로 추가하였다. 또한 소성왕 원년인 정원 기묘에 승 범수(梵修)가 당나라에서 신역후분(後分) 『화엄경』(「40화엄」)과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觀師義疏)를 구하여 돌아와 연술(演述)하였다<sup>30)</sup>고 하므로 지해가 궁중에서 강한 『화엄경』도 「80화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인 관사의 의소는 「80화엄」에 대한 주석서이기 때문이다.

27)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해공왕 4년 6월.

28)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해공왕 11년, 12년, 13년, 15년.

29) 『삼국유사』 권2, 원성대왕 :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에 의하면, “원성왕 원년에 처음으로 승관을 두고, 승려 중에서 재주와 행실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충당하였는데, 연고가 있으면 같고 일정한 연한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소년서성은 2명으로 원성왕 3년에 혜영·범여 두 법사로 임명하였다”고 하였다.

30) 『삼국유사』 권4, 승전족루.

### 9) 경문왕대의 황룡사탑 중수법회

황룡사탑은 경문왕 8년(868) 6월 제2차로 벼락을 맞았는데, 4년 후인 경문왕 12년(872)에 세 번째로 중수되었다. 이에 앞서 경문왕은 6년에 황룡사에 행차하여 간등(看燈)으로 표현된 연등행사를 구경하였다. 정월 15일의 행차로서 상원연등회이다.

문성왕 대부터 기울기 시작한 탑에 경문왕 8년 벼락까지 맞게 된 상황에서 조정은 그 수리에 고심하였을 것이고, 드디어 11년에 수리를 시작하여 13년(873)에 완성하였다. 이 당시 황룡사 9층탑의 수리 배경이 「황룡사찰주본기」에 전해지고 있는데, 경문왕대의 황룡사의 중요성이 드러나 보인다. 경문왕은 9층목탑을 수리하면서 황룡사성전(成典)을 설치하였다. 탑이 완성되자 낙성 의례로 낙성법회를 개최하고 사리함 봉안 의례로 『무구정경』에 의거한 탑돌이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 10)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 대의 강경법회

이 3왕은 모두 경문왕의 자손으로 이른바 경문왕가(家)의 왕들이다. 경문왕에 의해 황룡사탑이 재건된 후 이 3왕은 모두 황룡사에서 백고좌법회를 열어 강경법회를 개최하였고, 개최 연유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 이 3왕대의 강경법회를 묶어서 함께 살펴보려 한다.

먼저 헌강왕 대에는 왕 2년(876)과 12년(886)에 강경법회가 백고좌회 형태로 개최되고 있다. 즉 “2년 2월에 황룡사에서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백고좌를 베풀어 불경을 강설하였는데, 왕이 친히 행차하여 들었다”<sup>31)</sup>, “12년 6월에 왕이 병으로 편치 않으니 나라 안의 죄수들을 사면해 주고, 또 황룡사에 백고좌를 베풀어 불경을 강설케 하였다”<sup>32)</sup>고 기록되어 있다.

헌강왕 2년에 베풀어진 백고좌법회는 왕의 즉위 후 국내민안을 바라는 마음에서 선대왕들이 시조묘 내지 신궁에 참배했던 것과 같은 연유로 즉위 초에 개최한 것이다. 헌강왕은 경문왕의 태자로서 정강왕, 진성여왕, 효공

31)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헌강왕 2년.

32)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헌강왕 12년.

왕과 같이 경문왕가에 속하는 임금으로, 경문왕대의 정치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문왕가의 왕들이 즉위 후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베푸는 것은 아마도 경문왕대에 있었던 황룡사탑 대역사의 영향으로, 헌강왕 2년의 백고좌는 경문왕대의 전국통(前國統)이었던 혜흥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33)</sup> 또한 12년의 강경법회는 왕이 병이 났으므로 나라 안의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고, 백고좌회를 베풀어 국왕의 쾌유를 비는 법회를 열었다. 당시 국왕에게 인왕(仁王)이 될 것을 강조하고, 『인왕경』을 하루 2번씩 강독하게 한 것은 그만큼 국왕의 정치에 대한 인식과 국왕의 건강은 국가대사였기 때문이었다.

정강왕대의 백고좌법회는 “왕 2년 정월에 황룡사에 백고좌를 열고 왕이 친히 행차하여 불경을 강설하는 것을 들었다”<sup>34)</sup>는 내용으로, 이는 국태민안을 바라는 마음에서 즉위 초에 법회를 개최한 것이다. 진성여왕대의 백고좌법회는 “원년(887)에 죄수를 크게 사면하고 모든 주군(州郡)의 1년간 조세를 면제해 주고, 황룡사에 백고좌를 베풀었는데 왕이 친히 행차하여 설법을 들었다”<sup>35)</sup>는 내용이다. 이 역시 국태민안을 위해 즉위 초에 백고좌법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경문왕가와 황룡사와의 관련을 잘 보여주고 있다.

### 11) 경애왕대의 황룡사 백고좌법회

이 법회는 경애왕 즉위년인 924년 2월 19일이라는 날짜를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까지 회자된 법회이다. 우선 그 개최요인을 보면 첫째로 경명왕과 경애왕대의 천재지변은 거의 국난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둘째로 봉성사, 영묘사, 사천왕사, 황룡사와 같은 국찰에서 국망(國亡)을 예견하는 이상 징후들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33) 『황룡사9층탑찰주본기』 제2관 내면에는 “금상인 경문왕이 즉위한 11년 함통 신묘년에, 그 답이 기울어진 것을 한하여 이에 친동생인 상재상 위흥 이간에 명하여 △신으로 삼고, 사주인 혜흥을 문승(聞僧) 및 수감전(修監典)으로 삼았다”고 하였고, 제2관 외면에는 전 국통 승 혜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4)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정강왕 2년.

35)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진성왕 즉위년.

“경명왕 2년(918) 사천왕사 벽화의 개가 울므로 사흘 동안 불경을 강설 풀이하여 이것을 물리켰더니 한나절이 채 안 되어 또 울었다”는 기사와 동왕 “7년 경진(920) 2월에 황룡사 탑 그림자가 금모사지의 집 뜰 안에 한 달이나 거꾸로 서있었다”고 한 사건도 있었다. 고려가 건국하던 918년과 금모사지의 행동으로 인한 위해가 기사로 나타난 것이다. 때문에 경애왕은 즉위하면서 바로 신궁 참배에 이어, 황룡사에서 백좌법회를 개설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 3. 황룡사 강경법회의 준비와 진행

#### 1) 강경법회의 준비

강경법회는 대중에게 경전을 강설하여 그 내용을 숙지시키는 법회이다. 강경법회의 준비는 강경할 텍스트로서의 경전과 법회의 목적 숙지, 강사의 선정과 강경안의 작성, 강경 대상과 장소 준비, 강경법회의 진행, 강경 후 반승과 포상이 핵심적 내용이다.

#### (1) 강경법회 텍스트로서의 경전과 법회의 목적

황룡사에 대장경에 준하는 경전들이 보관된 것은 진흥왕 26년(565)부터이다. 진(陳)나라 사신 유사(劉思)가 신라승 명관과 함께 불교의 경과 논 1천7백여 권을 가져 왔는데, 이 경론들이 황룡사의 장경각에 안치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진흥왕 27년의 황룡사 낙성을 기념하여 미리 경론을 들여온 것으로 생각된다. 진에서 가져온 것은 경율론 삼장(三藏)이 갖추어진 대장경이 아닌 경과 론으로 그 권수도 미비하였으나 당시로서는 큰 사건으로 기록되었다.<sup>36)</sup> 그 후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법사가 대장경 완질 1부 삼장 4백여 함을 신고 돌아왔는데, 이 대장경은 자장의 거처였던 분황사 정원(精院)에 봉안되었을 것이지만,<sup>37)</sup> 대국통이며 황룡사의

3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26년.

37) 『속고승전』 권24, 자장. 김복순, 2016, 「자장의 분황사 주석과 구황동 원지」, 『원효

사주를 지낸 자장은 이 대장경이 통도사로 이안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활용하였을 것이다. 이 경전들은 현장(玄奘) 신역 이전의 구역(舊譯) 경전들로 신라 불교교학의 초석을 놓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신라 불교의 특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신라 황룡사 강경법회에서 텍스트로 썼던 경전들은 『인왕경』, 『섭대승론』, 『보살계본』, 『금강삼매경론』, 『화엄경』, 『법화경』 등이다.

먼저 『인왕경』은 백고좌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고승들을 전국에서 천거를 받아 이들로 하여금 강설하게 하였는데, 선덕여왕 대 개최된 백고좌법회에 처음 그 명칭이 나오며, 진평왕 대에 수의 사신 왕세의가 신라에 왔을 때 원광을 상수로 하여 열린 법회에서 안함 등 수유학승들의 주도로 『인왕경』 강경법회가 진행된 바 있다.

다음으로 『섭대승론』은 신라의 강경법회에서 매우 중요한 경전이었다. 이 강경의 전통은 원광, 자장, 원효, 현륜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귀족제사(歸竺諸師) 가운데 한 사람인 혜업은 정관 연간에 인도에 가서 나란다사에서 오래도록 강경을 듣고 경전을 읽었으며, 신라로 가져오려고 베낀 경전이 『양론』으로 바로 『섭대승론』 그것이었다. 신라인들이 『섭대승론』의 원본을 인도에 가서 구해오고자 하였던 염원을 보여주고 있다.<sup>38)</sup> 원광은 이에 앞서 해마다 2차례 『섭대승론』의 강론을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보살계본』은 자장이 황룡사 강당에서 7일 밤낮으로 설하자 그 감동이 이적(異蹟)으로 나타나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구름 안개가 끼어 강당을 덮었다고 한다.<sup>39)</sup> 『속고승전』권15 「석법상전」에 의해서 보면 자장의 『보살계본』강의는 당 유학 시절 법상에게서 받은 강의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금강삼매경론』은 선덕여왕이 치병(治病)을 위해 백고좌회를 베풀었을 때, 원효가 이에 천거되었으나 중앙에서 거부되어 그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 후 그는 황룡사에서 『금강삼매경론』을 강경하는 자리에서 “지난날 백 개의 서까래를 고를 때 비록 끼지 못하였지만, 이제 대들보 하나를 놓는데 나 혼자만 할 수 있구나”라며 기염을 토하자, 참석하였던 고명환

학연구』 21, 24~31쪽.

38) 김복순, 2016, 「의정의 『대당구법고승전』과 신라인」, 『신라문화』 45(『신라사상사연구』, 경인문화사, 430~431쪽).

39) 『삼국유사』 권4, 자장정릉.

스님들이 모두 얼굴을 숙이며 부끄러워한 사실이 전하고 있다.<sup>40)</sup> 『화엄경』은 성덕왕대 법해가 황룡사에서 「80화엄」을 강경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성왕 때에는 황룡사스님 지해를 대궐로 청해 들어 50일간 『화엄경』을 강경한 사실이 있다.

『금광명경』은 명랑이 사천왕사의 문두루비법을 행할 때 함께 사용하였던 텍스트로서 나오고 있지만, 경덕왕 대인 753년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광명경』 강회(講會)를 설행하였다. 이 경은 신라 하대 황룡사에 성전이 설치되고 국왕의 행차가 잦아지면서 강경텍스트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로 보아 『금광명최승왕경』을 강하였을 것이다.<sup>41)</sup> 또한 원성왕대의 국사인 연회는 『법화경』에 정통한 인물이어서 황룡사에서의 이를 강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적산법화원에서 겨울과 여름에 불교 강회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법화경』을 여름에는 8권본 『금광명경』을 강하였던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된다.<sup>42)</sup>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강경법회의 목적은 왕실의 평안(치병 등), 국대민안(외침방지 등),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 등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 강사의 선정과 강경안 작성

먼저 강사의 선정은 국왕과 이를 천거하는 이들의 공론으로 정해졌다.

40) 『송고승전』 권4, 신라 황룡사 원효, “신자와 승려들이 법당을 구름같이 에워쌌다. 이에 원효가 열변을 토하는데 위의를 있고 얽힌 것을 풀이하는데 법칙이 있었으며, 찬양하여 손가락을 튕기자 소리가 허공을 울렸다. 원효가 다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난 날 백 개의 서까래를 고를 때 비록 끼지 못하였지만, 이제 대들보 하나를 놓는데 나 혼자만 할 수 있구나”라며 기염을 토하자, 참석하였던 고명한 스님들이 모두 얼굴을 숙이며 부끄러워하였다”.

41) 수의 闍那堀多가 補譯한 8권 24품을 보기가 8권으로 합부한 책으로, 이 8권본 『금광명경』을 적산법화원에서 해마다 여름에 강설하였다는 것은 신라 호국사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신라에는 성덕왕대에 당에서 김사양을 통해 보낸 『최승왕경』을 국왕에서 텍스트로 썼을 것이다. 성덕왕대에 신라와 당이 그간의 소강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평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당에서는 자신들과의 대결에서 사용하였던 수대에 만들어진 8권본 『금광명경』을 대신해서 당의 의정이 변역한 『금광명최승왕경』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라고 보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42) 『입당구법순례행기』 권2, 838년 6월 7일.

예를 들자면, 황룡사에서 왕비의 병으로 인해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을 강하게 된 배경에는 이를 전해 준 용왕이 강사까지 추천하고 있다.<sup>43)</sup> 즉 “대안 성자가 순서를 매겨서 꿰매고 원효법사를 청하여 소를 지어 강석한다면, 부인의 병은 틀림없이 나올 것이니, 설산의 아가타약이라 할지라도 약효가 이것만은 못하리라”고 한 예가 있다. 이를 실행한 왕과 대안의 대화를 통해서도 다시한번 용왕의 당부가 실행되고 있다. “그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여 먼저 대안 성자를 불러 편집하게 하였다. 대안은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모습과 의복이 특이한데다 항상 시장터에서 구리로 된 바리때를 두드리면서 ‘대안’ ‘대안’하고 소리쳤기 때문에 대안이라 이름한 것이다. 왕이 대안에게 명하자, 대안이 말하기를, “그냥 경만 가져 오십시오. 왕궁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안이 경을 받아 배열하여 8품을 이루니 모두 부처님의 뜻에 합치되었다. 대안이 이르기를, “속히 원효에게 맡겨서 강연토록 하시오. 다른 사람은 안됩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문무왕 대에 유학차 당에 갔던 의상이 신라로 귀국하면서 당의 침입 소식을 알리자, 방어책을 묻는 문무왕에게 각간 김천존이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배워왔다며 추천하였다. 왕이 명랑을 불러 대책을 물으니 낭산 남쪽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개설하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예를 통해 볼 때, 전자는 용왕의 추천에 이어 대안의 추천을 받은 왕이 원효를 강사로 선발하여 강경하게 하고 있다. 후자는 의상의 소식전달에 이어 김천존의 추천을 받은 왕의 추인으로 명랑이 도량을 개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경안의 작성에 관한 것이다. 황룡사에서는 강경법회에 앞서 강경안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당의 신라사원에서도 낙성식이나 재 의식 때 소문을 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의 예로 원효의 강경안 작성에 관한 내용이다. 즉,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을 받은 곳은 출생지인 상주로, 이 경이 본각과 시각을 종지로 삼는 것을 중시하여 소가 끄는 수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술하여 소(疏) 5권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왕이 날을 택하여

43) 『송고승전』 권4, 신라 황룡사 원효.

황룡사에서 강연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야박한 사람들이 새로 지은 소를 훔쳐갔기에, 왕에게 사실을 알리고 3일을 연장하여 다시 3권을 짓고 약소라 불렀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예로서 “환군법사라는 이가 재탄문(齋歎文)과 식의식(食儀式)의 순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범패, 행향, 탄불, 주원, 재탄문 낭독, 염송, 창례, 공양을 한다”는 것이다.<sup>44)</sup>

이와 함께 강경안 작성의 예로, “법화소를 찬하고 양나라 광택법운이 소를 지어 강경하였다”<sup>45)</sup>는 것과 “성왕 19년(541) 왕이 사신을 양에 파견하여 조공하고, 겸하여 표문을 올려 모시박사와 『열반의소』등 경전 및 공장, 화사 등을 요청했더니, 양에서 이를 들어주었다”<sup>46)</sup>는 예를 언급할 수 있다.

첫 번째 언급한 원효의 예를 보면, 그는 『화엄경소』제4 10회향품에서 절필하기 전까지 너무나도 많은 주석서를 집필하였다. 그는 왜 주석서를 썼을까. 그것도 수많은 경전들을 대상으로 한 주석서라는 점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강경법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에 대해 『금강삼매경론』이 원효의 『기신론』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된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유식계의 보수파가 이를 훔쳐 없앴다는 견해가 있고,<sup>47)</sup> 반면 저술한 5권본을 도난 당했다는 것은 후인의 가필이고 원효는 본래 현존 3권본만을 지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있고 이에 동조한 의견도 있다.<sup>48)</sup> 말하자면 이러한 전승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효의 반대세력을 강조하거나 극적 효과를 노리는 구성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원효가 소를 찬술하는 과정이 너무도 자세히 리얼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에 가깝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용왕, 대안, 임금의 추천과 부탁을 받고 황룡사에서 왕비의 병을 낫게 하려고 이 경을 강경해야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으며 그것이 강경을 위한 강경안으로서의 소 5

44) 『입당구법순례행기』 권2, 11월 24일.

45) 『불조통기』 권7, 동토구조기 3-2 0186b28 灌頂.

46)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성왕 19년.

47) 고익진, 1989,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출판부, 368쪽.

48) 바스웰, 1988, 「Did Wonhyo write Two Versions of His Kumkang SammaeguonRon?」, 『제5회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94쪽 ; 김상현, 1994, 『역사로 읽는 원효』, 고려원, 225쪽.

권과 약소 3권인 것이다. 즉 임금과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강경을 하면서 그는 조금의 실수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강경안이 바로 이 소 5권이었고 그것이 훼손되자 다시 지은 것이 약소 3권이었던 것이다. 그가 지은 5권의 소가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머리에 정리되어있던 내용을 강경을 위해 약소 3권으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두 번째 예는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중국의 양주에서 엔닌이 시주로서 재를 마련하였을 때로, 재탄문과 식 의식을 먼저 마련하는 부분이 주목되며, 재를 마치면 모인 스님에게 비용의 일부를 남겨 돈을 고루 나누어 주는데, 재문을 지은 이에게는 별도로 돈을 더 준다는 것이다. 만일 스님들에게 각각 30문을 준다고 하면 재문을 지은 스님에게는 친전(親錢)으로 40문을 보시한다는 것이다.

광택법운의 예는 중국에서도 황제 앞에서의 강경법회에는 강경안이 중요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 백제 성왕의 예이다. 강경안은 직접 강사가 작성하여 강경한 경우도 있지만 강경안으로 쓸 수 있는 이름난 소를 수입한 경우이다. 즉 백제는 양나라에 『열반의소(義疏)』 등 경전을 요청하여 유입하고 있다. 이는 백제 왕실에서 『열반경』을 강설하는 강경법회를 열었을 때 이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sup>49)</sup> 이에 대한 주석서인 『열반의소』<sup>50)</sup>를 양나라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생각된다.

### (3) 강경법회의 대상과 장소

황룡사와 같은 국찰에서의 강경법회는 그 대상인 청중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의례의 식순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대국통 자장이 황룡사에서 7일 동안 밤낮으로 『보살계본』을 강연하였는데, 그 내용과 강연이 훌륭하여 하늘에서는 단비가 내리고 안개가 강당을 자욱하게 덮자 참석하였던 사중(四衆,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인 남자스님 여자스님, 남녀신도가 모두 그 신이함에 탄복하였다는 것이다.<sup>51)</sup> 또 다른 예는

49) 고려 초 오월왕이 『법화현의』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사신을 보내어 고려에 일실된 책을 요청하자 고려에서 체관을 파견하여 불경을 전해준 예가 참조된다.

50) 이 『열반의소』는 509년 寶亮이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며, 도생의 『열반경의소』, 도량의 『열반경의소』등도 있다.

황룡사에 원효의 『금강사매경론』 강경을 듣기 위해 “신자와 승려들이 법당을 구름같이 에워쌌다”는 것이다.

황룡사에서의 강경장소는 금당과 강당이 있었을 것이나, 재 의식 등 행사의식은 금당에서, 그리고 강경법회는 강당에서 행해졌을 것이나 강당이 비좁을 경우에는 마당에 천막을 치고 더 많은 사중을 수용하였을 것이다. 원효의 강경에 앞서 임금이 날을 택하여 황룡사에서 강연할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임금의 참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강경법회에는 임금, 고명한 스님, 신자 등이 강당을 꽉 채운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로 보면 국찰에서의 강경대상에는 왕과 왕실, 대신들이 있고, 스님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사부대중이 운집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강경법회에는 다른 불교의례와 같이 많은 꽃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강당을 장엄하는데 쓰일 꽃과 산화와 같은 형식에 쓰일 꽃이다. 생화로는 연꽃을 비롯하여 치자꽃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꽃들로 장식하였을 것이고, 산화에 필요한 꽃들은 생화를 말린 꽃잎이거나, 지화(紙花), 채화(綵花), 저포화(苧布花), 납화(蠟花) 등이 쓰였다. 지화는 고려의 연등회와 팔관회에 사용되었고, 비단으로 만든 꽃과 장엄구 역시 고려시대에 폭넓게 사용되었으므로, 신라에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 2) 강경법회의 진행과 반승, 포상

신라 강경법회의 구체적인 진행은 엔닌의 적산원강경의식과 신라1일강경식에 자세히 나와 있어<sup>52)</sup> 이를 기본으로 하여 황룡사 강경법회의 진행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경법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전의 준비에 이어 강사의 선정과 강경안의 준비, 강경 일자의 택일 등의 준비가 끝나면, 이 사실을 사부대중에게 알려 참석을 권유한다. ◎강경법회 의식을 주도할 유나 스님을 정하여 식순을 마련하게 한다. ◎강경을 알리는 종을 치면, 황룡사 강당 안팎에 운집해 있던 사부대중이 강당으로 들어간다. 왕과 왕비가 황룡사 강당에 도

51) 『삼국유사』 권4, 자장정불.

52) 『입당구법순례행기』 권2, 개성 4년 11월 22일.

착하였을 때, 적산원에서 의 예로 보면 황룡사에 도착한 왕과 왕비는 스님들이 줄지어 서 있는 강당으로 들어가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걸어가 몸을 청결히 하는 의식을 치르고 다시 걸어 나와 자리에 앉는다. 왕과 왕비를 호위하는 병사들 대다수는 밖에 있고 시종들은 그 뒤를 따랐을 것이다. 왕과 왕비가 강당에 좌정하면, 강경에 앞서 의식을 진행한다. ㉠강사가 강당에 들어와 고좌에 오르는 동안 사부대중들은 같은 목소리로 탄복한다. ㉡강사를 따라 들어 온 도강(都講) 또는 독사(讀師)는 강의를 이끌면서 강사를 도와줄 스님으로,<sup>53)</sup> 강사가 북좌(北座)에 앉고 도강이 남좌(南座)에 앉으면 탄복을 멈춘다. 왕과 왕비를 비롯한 고승들이 행향을 하고 나면, 하좌(下座)에 있던 한 승려가 “원하옵나니 부처님의 미묘한 뜻을 열어 여러 중생을 위해 설해 주옵소서”라는 청법가와 같은 법패를 하고, 사부 대중은 함께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운운의 계송을 창한다.<sup>54)</sup> 또는 “운하어차경(云何於此經)”이라 하여 운하괘(云何唄) 또는 운하범(云何梵)이라는 『대반열반경』권3 수명품의 한 구절을 법회 처음에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강경법회는 1일, 3일, 7일, 50일<sup>55)</sup>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행해졌으므로 강경 첫날과 회향날은 참석자 수와 예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첫날 산원에서 『법화경』 개강하는 모습을 적은 것으로, 적산법화원에서는 “11월 16일부터 시작하여 정월 15일까지 『법화경』을 강설하였다. 여러 곳에서 온 많은 승려와 인연있는 시주가 모두 와서 모인다. 성림(聖琳)화상이 강경의 법주(法主)이고 논의승은 돈증과 상적이다. 남녀 도속이 모두 절에 모여 낮에는 강경을 듣고 밤에는 예불 참회하고 청경하며 차례차례로 이어간다. 승려 등 그 수가 40여 명이다. 강경과 예참 방법은 모두 신라 풍속에 의거하였다. 다만 오후 8시 경과 새벽 4시 경 2차례의 예참은 당나라 풍속에 의거하였다. 그 밖의 것은 모두 신라 말로 하였다. 집회참석자는 승속, 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신라인이고, 3명의 승려와 행자 1명만이 일본국 인이었다”<sup>56)</sup>는 것이다. 다음으로 강경법회를

53) 小野勝年, 1964,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2)』, 鈴木學術財團, 156쪽.

54) 『입당구법순례행기』 권2, 개성 4년 11월 22일.

55) 『삼국유사』 권2, 원성대왕, 황룡사승 지해가 내전에서 50일 간이나 『화엄경』을 강의하였다고 하였다.

마치는 날의 모습을 적은 예이다. “이날 산원의 『법화경』강회를 마쳤다. 모인 남녀가 어제는 250명이었고, 오늘은 200여명이었다. 결원(結願)이 끝난 뒤 모인 대중에게 보살계를 주었다. 재를 마친 후 모두 흩어져 갔다”<sup>57)</sup>고 하였다.

◎범패가 끝나면 남쪽 좌석의 도강은 그 전날 강사가 강의한 문장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어떤 뜻이 있다고 여겨지는 구절에 이르면, 강사는 그 대목을 문장으로 만들어 그 뜻을 풀이하고 복강사가 또한 그것을 읽는다. 강사의 강의요점을 복습해 부연하는 스님인 복강사(覆講師) 한 사람이 남쪽 아래 자리에서 강사가 어제 강의한 경문을 읽는다. 중요한 교의를 함의하는 구절과 같은 곳에 이르면 강사는 그 경문을 다시 읽히고 그 뜻을 설명한다. 복강사도 역시 읽는다. 어제 강술한 글을 다 읽게 되면 강사는 곧 다음 글을 읽는다.

◎도강이 오늘 강의할 경전의 제목을 큰 소리로 외치는 창경(唱經)을 하는데, 길게 빼서 부르며 음에 굴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도강이 경전의 제목을 부르는 역할을 한 것은 돈황 출토 팔상압좌문(八相押座文)에 보이며, 유마경압좌문에도 나온다.<sup>58)</sup> 이 동안에 대중들은 3번 꽃을 뿌리는데, 꽃을 뿌릴 때마다 각기 소원하는 바를 염송한다. 산화(散花)는 꽃을 뿌려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으로, 귀신은 꽃향을 맡고 햇빛보기를 싫어해서 악귀를 쫓고 부처님을 청하는 뜻으로 산화를 한다. 이때 권청(勸請) 또는 찬탄을 위해 꽃바구니에 넣은 생화나 말린 꽃잎, 지화 등을 불전에 뿌리는데 이 때 산화악(散花樂)이 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Pelliot 장래본 돈황문서(제3216호)의 『정토오회염불송경관행의』에 산화악문에 의거한 것이다.<sup>59)</sup> 874년의 일이지만 이본에서는 아악료(雅樂寮)의 당악(唐樂)과 고려악(高麗樂), 대안사(大安寺)의 임읍악(林邑樂), 흥복사(興福寺)의 천인악(天人樂) 등을 연주한 사실이 보이고 있어,<sup>60)</sup> 신라에서도 많은 연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6) 『입당구법순례행기』 권2, 개성4년(839) 11월 16일.

57) 『입당구법순례행기』 권2, 개성5년(840) 정월 15일.

58) 小野勝年, 1964, 앞의 책, 157쪽.

59) 김문경, 1984, 『당대의 사회와 종교』, 숭전대학교 출판부, 144~155쪽 참조.

60) 『일본삼대실록』 권25, 清和天皇 貞觀 16년 3월 23일, 貞觀寺의 大齋會.

◎창경이 끝나면 다시 짧게 제목을 외친다. 강사는 강경을 시작하면서 경 제목을 해설하고, 삼문으로 나누어 경전의 대의, 제목의 의의, 문의의 해석 등을 강술한다. 제목을 해석하고, 경의 내용에 들어가 정해진 시간만큼 그 내용을 연술한다. 예를 들면,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을 연술하면서, “열편을 토하는데 위기가 있고 얽힌 것을 풀이하는데 법칙이 있었으며, 찬양하여 손가락을 뺏기자 소리가 허공을 울렸다. 다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난 날 백 개의 서가래를 고를 때 비록 끼이지 못하였지만, 이제 대들보 하나를 놓는데 나 혼자만 할 수 있구나”라며 기염을 토하자, 참석하였던 고명한 스님들이 모두 얼굴을 숙이며 부끄러워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사람들의 현실적 고통이 어디로부터 생겨나며 또 어떻게 하면 나그네가 고향의 옛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하였다. 그는 논의를 술대의(述大義), 변경종(辨經宗), 석제명(釋題名), 소문의(消文義)로 나누었고 경은 서분, 정설분(正說分), 유통분으로 나누어 서품, 무상법품(無上法品), 무생행품(無生行品), 본각이품(本覺利品), 입실제품(入實際品), 진성공품(眞性空品), 여래장품(如來藏品), 총지품(總持品)의 8품을 일미관행(一味觀行)의 일관된 뜻으로 연술하였다.

◎강경이 끝나면, 대중을 통솔하는 유나가 일어나 법좌 앞에 나아가 법회를 개최한 연유를 말하고 시주자의 이름과 보시 물품의 내용을 말한다. 시주의 물명과 명단을 적은 것을 강사에게 드리면, 강사는 불자(拂子)를 들고 시주자를 일일이 거명하면서 독자적인 축원을 한다.

◎난(難)이 있는 이는 질문을 하는데, 그 형식은 손을 옆으로 세 번 오르내린 후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화난 사람같이 한껏 외치며 싸우는 것처럼 크다. 강사는 불자를 들고 듣다가 질문이 끝나면 불자를 높이 들어 질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에 대하여 답하고 나면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문답은 모두 기록한다. 논의가 끝나면 경문의 설명에 들어가 경의 뜻을 이야기하고 강의는 끝난다. 예를 들면,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을 논하는데 위풍이 있었고 논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논의가 끝나면 경전을 읽는다. 독경을 마치고 대중이 함께 찬탄하는데 회향의 구절(廻向詞)도 있다.

◎강사가 고좌에서 내려오면 한 스님이 계승으로 “세상에 처하기 허공과 같이 하므로 연꽃이 물에 젖지 아니하듯 마음이 청정하여 그로부터 초

탈하니 더없이 존귀한 이에게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sup>61)</sup>라고 찬한다. 이는 진(晉)의 섭승원(聶承遠)이 번역한 『초일명삼매경(初日明三昧經)』에 보이는 보명(普明)보살이 찬한 계송이다. 이는 법회의 마지막에 부르기 때문에 후패(後唄)라고도 한다. 강사가 예반에 오르면 한 스님이 삼보례를 찬한다. 이 예는 한 스님이 불보살을 향해 행하는 정중한 예법으로 『화엄경』 제6 정행품(淨行品)에 수록된 계송인 삼자귀의문(三自歸依文)과 귀의삼보문(歸依三寶文) 등이다. ㉠강사는 강당에서 나가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 왕과 왕비가 어느 대목에서 나갔는지는 가늠할 수 없는데, 만일 끝까지 강경을 들었다면 강사가 나갈 때 함께 나갔을 것이다.

㉡황룡사에서 강경법회를 마치고 나면 왕은 참석한 승려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를 반승이라 한다. 황룡사에서 강경법회를 마치고 반승한 기록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강왕대와 경애왕대에 그 사례가 나오고 있다.

#### 4. 신라 강경법회의 유형과 황룡사 강경법회의 변화

신라의 강경법회는 그 대상을 누구로 하였는가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유형은 국왕, 왕실, 대신 등을 대상으로 하여 대부분 국찰 내지 왕궁 등의 장소에서 행해진 강경법회로, 강사가 혜량, 원광, 자장, 원효, 경흥, 태현 등 국통 내지 그에 버금가는 인물들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의 유형은 강사의 제자 내지 신도 심지어 돌멩이를 대상으로 한 일반사찰 내지 벽지에서 행한 강경법회로, 강사가 의상, 승전 등 후대에 그 이름이 널리 선양된 고승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강사, 장소, 청중이 대조적인 비교가 되는 강경법회는 강경법회의 결과물이라고 할 강경안 역시 두 유형의 차이만큼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국왕, 왕실을 대상으로 한 국찰에서의 강경법회는 앞서 황룡사의 강경법회를 통해 텍스트로서의 경전과 강사의 선정, 강경대상과 장소, 강경안의

61) 엔년, 『입당구법순례행기』 권1, 12월 8일.

작성이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sup>62)</sup> 그러나 삼국시기 강경법회의 초창기 모습에서는 황룡사 등의 국찰 강경법회에 필요했던 이러한 여건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국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신라 강경법회의 최초 기록은 소지왕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목호자와 모습이 비슷한 아도화상이 시자 3인과 함께 모례가(毛禮家)에 와서 몇 년을 머물다가 죽었는데, 시자(侍者) 3인이 그 곳에 머물면서 경과 율을 강독하였더니 종종 신자가 생겼다는 것이다.<sup>63)</sup> 이때의 모습은 후대의 강경법회와는 달리 경과 율을 강독하고 설명도 하지만 주로 독경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 초기 기록에는 강경보다는 독경 기록이 훨씬 많이 보이고 있다.<sup>64)</sup>

백제의 혜현은 58세인 정관 초년(627)에 입적하였기 때문에 무왕 대에 활약한 고승이었다.<sup>65)</sup> 그는 항상 『법화경』을 외우는 것을 업으로 삼았고, 삼론(三論)을 다 배워 신명에 통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그가 수덕사에 거주하면서 “대중이 있으면 강경을 하고 없으면 지송(持誦)하였다”고 한 대목이다. 강경법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를 들어줄 신도가 필요한데, 그의 강경법회에는 사방 먼 곳에서까지 찾아와 문밖엔 신발이 가

62) 고려시대 예이기는 하지만, 이병희, 2004, 「고려시기 낙성행사의 設行」, 『문화사학』 21, 606쪽에 의하면, 고려초 개태사 낙성회에 태조 왕건이 지은 「개태사화엄법회소」, 고려 말 권근의 「관음굴낙성경찬화엄경소」, 「광엄사증창제3법회경찬화엄삼매참소」 등이 알려져 있다. 고려에서는 대부분의 낙성행사 때 소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경법회에서 유명한 고승들의 기존의 소문(疏文)이 활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강호선, 2015, 「고려시대 국가의례로서의 불교의례 설행과 그 정치적 의미」, 『동국사학』 59, 66쪽, 고려시대 문집과 『동문선』 등에 실린 불교의식에 사용된 국왕의 명으로 작성된 疏文이 다수 전하고 있는데, 강호선은 불교의례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 소문들의 분석이 기초 작업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6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15년.

64) 일본의 경우 6국사에 나오는 강경법회는 4차인데 비해 송경(誦經)의례는 51차나 나오고 있어 당시 일본불교의 강경법회의 수준을 알려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강경이 행해진 863년 천황이 베푼 신천원(神泉苑) 영회(靈會)에서 율사 혜달을 강사로 하여 『금광명경』 1부와 『반야심경』 6부를 설하게 하고는, 아악로(雅樂寮)로 연주하게 하고 황제 근시의 아동, 양가집 아이들을 무인(舞人)으로 삼아 대당과 고려의 춤을 추게 한 기록이 크게 전하고 있어, 874년 정관사 대제회의 예와 함께 강경법회에서 뒤풀이 행사가 중시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65) 『삼국유사』 권5, 혜현구경.

득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여서 이를 피해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수도하였다는 것이다. 백제는 수많은 경전을 일본에 전해준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백제 국내에서 널리 유통된 것은 『열반경』과 『법화경』, 삼론과 같은 대승경전으로, 백제의 고승들은 이를 강경법회의 경전으로 사용하여 대중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삼국시대의 승려들은 경전공부를 마치고 나면 신도를 위해 강경하거나 홀로 있을 때는 독경을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업으로, 이는 불교를 교육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행되었다.

중국유학승으로 추정되는 낭지는 삼량주 아곡현에 있는 영축산에 와서 머물면서 늘상 『법화경』을 강경하였는데 신통력이 있었다고 한다.<sup>66)</sup> 낭지 등의 사적이 나오는 시기인 신라의 진평왕대 어간에 『법화경』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7세기 전반 신라 사회가 법화신앙의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까지 언급되고 있다.<sup>67)</sup> 그런데 낭지의 『법화경』 강경이 원호에게도 영향을 끼쳐 그가 여러 권의 『법화경』주석서를 내었고, 『삼국유사』 「광덕 업장」조에 『법화경』의 19응신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즉, 원호의 『법화경』주석은 『법화경종요(宗要)』 1권, 『법화경방편품료간(方便品料簡)』 1권, 『법화약술』 1권, 『법화요약』 1권 등 4종이다. 이 가운데 『법화경종요』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낭지의 『법화경』강경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광과 보덕에게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즉 “원광이 25살 때 배를 타고 금릉(金陵, 남경)에 이르면 때가 진의 시대로, 장엄사 민공(旻公) 제자의 강의를 듣고, 진주(陳主)에게 글을 올려 출가를 청하니 직명으로 허락하였다. 원광은 소주(蘇州)의 호구산(虎丘山)에 들어가 수도하고 있을 때, 어떤 남자 신도가 산 밑에 살고 있었는데 원광에게 강의를 청하므로 사양하다가 처음에 『성실론』을 진술하고 끝으로 『반야경』을 강의했는데 명성이 자자하였다”<sup>68)</sup>고 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보덕은 평양성에 살았는데 산방

66) 『삼국유사』 권5, 낭지승운 보현수, 김복순, 2010, 「신라 중고기 불교와 『법화경』 - 『삼국유사』, 낭지승운 보현수 조를 중심으로 -,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 명예보다 求道를 택한 신라인 -』 31, 101~130쪽.

67) 박광연, 2008, 「신라 중고기의 법화사상」, 『한국사상사학』 31, 88쪽.

68) 『송고승전』 권4, 원광 :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

노승이 찾아와 청하므로 『열반경』 40여 권을 강연하였고, 백제 고대산으로 망명 후 원효와 의상이 그를 찾아가 법석에 참여하였을 때 들었던 경전도 『열반경』과 『유마경』 등이었다”<sup>69)</sup>고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승 혜자가 영양왕 6년(595) 일본으로 건너가 성덕대자의 사부가 되어 『법화경』, 『유마경』, 『승만경』 등을 가르친 사실로 볼 때, 고구려에서는 강경법회에 대승경전을 강설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초기 강경법회의 모습은 경을 강할 대상이 생기면 경을 강하고 홀로 있을 때는 독경을 하거나 경전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텍스트로서의 경전과 강사의 선정, 강경대상과 장소, 강경안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했던 국찰에서의 강경법회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하나 특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룡사 등의 국찰에서 개최된 강경법회는 법회에 앞서 작성되었던 강경안 내지 소문들이, 일반 강경법회에서는 법회를 마치고 나서 그 제자들에 의해 강의안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의상은 부석산에 정주해 있으면서 늘 『화엄경』을 강경하였다. 의상의 강경법회는 왕과 왕실, 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강경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서였다. 왕 앞에서의 강경법회 때 필요한 강경안이 그에게는 필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60화엄에 대한 개요인 「화엄일승법계도」의 내용을 가지고 90일간, 40일 간에 걸쳐 『화엄경』의 강경을 진행한 것이다. 그의 강경 내용은 그의 제자들이 채록하여 강의안을 남겨 놓았는데, 지통, 상원, 도신 등 제자들이 스승의 강의 내용을 채록한 것이다. 그것도 이두 형태이다. 의상은 중국 유학까지 다녀온 지성인이었지만, 그의 제자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그러므

69) 의천, 『대각국사문집』 권17, 고대산경복사비래방장에보덕성사영, “涅槃方等教 傳授自吾師 兩聖橫經目 - 元曉義湘 嘗參講下親稟 涅槃維摩等經 - 의 내용과 이규보, 「남행일기」(『동국이상국집』 권23)에 보덕의 비래방장에 관한 사실이 전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일연이 『삼국유사』 권3, 보장봉로 보덕이암조에서 일부 가져다가 옮겨 서술하였다. 즉 대안 8년 신미(1092)에 고려의 우세승통(의천)이 고대산 경복사의 비래방장에 가서 보덕성사의 영정에 예를 취하고 시를 지었는데, “열반. 방 등교의 가르침이 우리 스승으로부터 전해졌다고 이르네 운운”.

로 의상은 되도록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강경하였을 것이고, 이를 정리한 내용에 향찰이 섞여서 쓰여 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의천에 의하면, 『송고승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의상의 『화엄경』강의를 기록한 『요의문답』(추혈문답) 2권과 『일승문답』(도신장) 2권에는 우리말이 섞여 있어 문체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였다.<sup>70)</sup> 이러한 의상의 강경형태는 고려 초 균여의 저술에 보이는 『추동기』의 인용 형태로 보아 계속해서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갔다고 할 수 있다.

『추동기(錐洞記)』를 저술한 지통은 낭지에게서 『법화경』을 배우고 후에 의상에게 가서 오묘한 것을 깨닫고 자못 교화에 이바지한 인물로, 그 교학배경에 낭지의 영향이 확인된다. 『추동기』는 『화엄추동기』<sup>71)</sup>, 『추동문답』, 『추혈기』, 『추혈문답』, 『지통기』, 『지통문답』, 『요의문답』등 여러 이칭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즐겨보았던 저술이다.<sup>72)</sup> 지통이 이를 짓게 된 사연은 「진정사 효선쌍미」조에 자세하다.<sup>73)</sup> 즉 진정사가 효와 선을 다 같이 실천하기 위해<sup>74)</sup> 노모를 홀로 두고 출가하여 수행하던 중 부음을 받고 7일 간 입정에 들었다가 이 사실을 스승 의상에게 고하자, 의상이 소백산 추동에서 90일 동안이나 『화엄경』을 강하였다. 이 때 지통은 스승의 강의를 듣고 이를 2권의 『추동기』라는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추동기』는 의상이 강의한 내용을 제자 지통이 정리한 강의안이다. 『화엄경』은 대승경전의 꽃으로 알려진 매우 난해한 경전이다.<sup>75)</sup> 따라서 그가 의상의

70) 『신편제종교장총록』 권1, 김복순, 2008, 『신사조로서의 신라불교와 왕권』, 141~142쪽 참조.

71) 『고려사』 권102, 열전 이장용.

72) 김상현, 1996, 「『추동기』와 그 이본 『화엄경문답』」, 『한국학보』 84, 33쪽. 특히 일본에 전해지는 범장의 저술로 알려진 『화엄경문답』을, 균여의 저술과 『법계도기총수록』에 전하는 『추동기』 일문과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일치함을 밝혀내어 『추동기』의 이본임을 확인하고 있다.

73) 『삼국유사』 권5, 진정사 효선쌍미조에 의하면, “진정사는 입정에서 나온 후 사실을 의상에게 告하였다. 의상이 문도를 이끌고 소백산 추동에 가서 초가를 짓고 도중 3천을 모아 90일간 『화엄경』을 강하였다. 문인 지통은 강경에 따라 그 요지를 뽑아 2권을 만들어 『추동기』라 하여 세상에 유통시켰다. 강경을 마친 후 그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나는 이미 하늘에 태어났다’고 하였다”.

74) 김복순, 2009, 「삼국유사 효선쌍미」,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4, 37~60쪽.

75) 『화엄경』은 남조 진의 천대 지의에 의해 시도된 5시8교의 교상관석에서 석가모니

강의를 듣고 이해한 내용을 책으로 정리할 정도라면, 지통의 교학적 기반은 대단한 것으로 그 기반은 낭지의 문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승전의 강경법회와 관련된 내용이 이 부류에 속한다. “승전은 상주 영내의 개령군에 사원을 짓고 돌맹이들을 관속으로 삼아 『화엄경』을 개강했다. 후에 신라 사문 가귀가 자못 총명하고 도리를 알아 법맥을 계승하여 「심원장(心源章)」을 엮었는데, 그 대략에서 승전법사는 돌 무리를 거느리고 불경을 논의하고 강연하였다고 했다. 그곳이 지금의 갈항사이다. 그 돌맹이 80여 개는 지금까지 강사(綱司)가 전하고 있는데 자못 신령스럽고 이상한 점이 있다. 그 밖의 다른 사적은 비문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 『대각국사실록』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sup>76)</sup> 승전의 제자 가귀가 「심원장」을 지어 스승의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승전이 해골 모양의 돌을 놓고 강의한 사실을 특기하였는데, 이는 당시 그만큼 그의 강의에 주목한 이들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경형태는 그들의 결과물을 통해, 이들과 국가와의 관계로 대조해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의상을 “후일 세상에 전하기를 금산보개(金山寶蓋)의 현신(現身)이라 하였는데”<sup>77)</sup> 이는 그의 이러한 강경형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궁중과 국찰에서 강경안을 만들어 경전을 해설한 것이 아니라 의상의 강의 내용을 제자들이 강경안으로 정리한 것을 부처가 제자들에게 강설하여 제자들에 의해 경전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유한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의상과 호형호제하던 현수법장은 의상에게로 서신을 보내어 자신의 저술에 대한 감수를 부탁하고 있다. 법장은 중국 화엄종의 제3조로 측천무후 앞에서 수많은 경을 강하면서 강경안으로서 많은 저술을 하여 의상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신라의 강경법회는 대상을 누구로 삼아 어디에서 행해진 것이었느냐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강경법회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다.

---

가 정각 후 제일 처음 21일 간 설한 내용이 『화엄경』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아함 12년, 방등 8년, 반야 21년, 법화 8년을 설법하였다고 할 정도로 난해한 경전이라는 것이다.

76) 『삼국유사』 권4, 승전족루.

77) 『삼국유사』 권4, 의상전교.

마지막으로 황룡사 강경법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신라의 경애왕대에 행해진 황룡사에서의 백고좌법회는 이례적인 사실을 밝혀 놓고 있다.

즉 “제55대 경애왕이 즉위하던 동광(同光) 2년(924) 갑진 2월 19일에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베풀어 경을 설하였다. 겸하여 선승 300명에게 반승을 하였다. 대왕이 친히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드리었다. 이는 백고좌법회에서 선교가 함께 설해진 시초이다”<sup>78)</sup>라는 것이다.

당유학승으로 남종선을 수행한 도의선사는 헌덕왕 13년(821)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가 수학한 최신사조의 불교인 선종이 신라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어(魔語)를 한다고 냉대를 받아 그는 왕정에 머물지 못하고 진전사로 은거하였다.<sup>79)</sup> 이 마어라고 하는 것은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과 같이 짧은 선어로 자신의 말을 하는 선사들이 당시 유식학의 장설광을 늘어놓던 신라학승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러나 당나라의 회창(會昌, 841-846) 폐불 이후 신라로 대거 귀국한 선사들의 활약상이 신라 조정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경애왕대에 이르러서는 황룡사 백고좌법회에서 100명 안에 선승들이 참여하고 선승 300명이 반승하고 있다. 이는 신라 말 선승들이 국사로 임명되는 등 이들의 활약상이 국가행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예라 하겠다.

따라서 황룡사의 백고좌법회로 대표되는 강경법회는 교종 승들에 의해 이루어지던 것이 선종 승들의 활약에 힘입어 교종승과 선종승들의 합작으로 변화하고 있음 보여주고 있다.

## 5. 맺음말

황룡사의 강경법회는 신라사회 불교의 변화상을 한 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거국적 불교행사라고 할 수 있다. 3시기로 나누어

78) 『삼국유사』 권2, 경애왕, “皇龍寺說百座說經 兼飯禪僧三百 大王親行香致供 此百座通說禪教之始”.

79) 『보림사 보조선사비문』, 『설악산 진전사 원적선사비문』, 『조당집』 17.

강경법회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우선 중고기이다. 신라 등 삼국에서는 황룡사와 같은 국찰에서의 강경법회에 앞서 초라하지만 작은 형태의 강경은 수도 없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점차 모여지고 원해져서 국가와 모든 국민을 위한 거국적 규모와 형태의 황룡사 강경법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대에는 나당전쟁의 와중에 사천왕사에서의 문두루비법을 시행한 공으로 인해 황룡사는 국찰로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황룡사의 강경법회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강경 내지 지해의 『화엄경』 강경과 같은 전문적인 강경을 위한 법회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하대에는 황룡사탑의 중수를 위한 사원성전이 설치되고 경문가왕들의 황룡사 중시로 인해 다시 황룡사의 강경법회는 중고기 위상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전과는 달리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경애왕대에는 선종의 영향이 커지면서 국가차원에서 선사를 포용하여 백고좌를 채우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신라 황룡사의 강경법회는 국찰에서 국왕과 대신들이 주로 참석한 법회로서 여러 준비 사항을 필요하였다. 먼저 텍스트로서의 경전을 정하고, 다음으로 국왕의 치병, 국대민안 등의 목적을 분명히 한 후, 다음으로 강사를 선정하여 강경안을 작성하게 한 후 참석대상을 확정하고 황룡사 강당 내지 마당에 천막을 쳐서 장소를 확보하게 하였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보면, 강경일의 선택과 사부대중의 참석 권유, 유나승과 식순을 확정지은 후 강경법회를 시작한다. 우선 운지종과 강당으로의 모임, 탄불, 등좌, 운하패(여래패), 복강사의 복습, 강경 제목, 산화, 강경, 모연문, 질문 및 논의, 독경, 처세패, 삼귀의례, 폐회, 반승의 순으로 강경법회가 이루어졌다.

신라의 강경법회는 아도에 의한 모례가에서의 강경에서 비롯되어 수많은 강경이 이루어졌는데, 황룡사와 같은 국찰에서는 국왕과 대신 등을 위한 강경안이 마련되어졌고 의상이나 승전 등과 같이 제자들에 의해 강의안이 작성되어지는 두 유형의 강경법회가 존재하였음이 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삼국 초기 단순하고 초라한 강경법회의 모습이, 점차 국찰에서 강경안을 작성하고 국왕이 참석하는 규모가 큰 강경법회로 개척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작은 사찰에서 행해진 의상의 강경과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에 의해 채록되어 편찬된 강경안이 남겨지고 나아가 후대에는 선사들의 설법형태로 진행된 것이 신라 강경법회가 변화해 나간 모습이라고 하겠다. 정

리하자면, 신라 황룡사의 강경법회는 교종 승에 의해 주도된 거국적 규모에서 중대의 전문적인 강경법회의 양상이, 하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형식화되어 가다가, 신라 말 선종의 영향으로 선교통설(禪教通說)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황룡사 강당, 황룡사 강경법회, 신라 강경법회의 유형, 강경안, 선교통설, 원효

논문투고일 : 2017. 03. 31

논문심사시작일 : 2017. 04. 14

논문게재확정일 : 2017. 05. 08

## 참고문헌

### 1. 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입당구법순례행기』 『해동고승전』 『속고승전』 『송고승전』 『대각국사문집』 『동국이상국집』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조당집』 『한국불교전서』 『불조통기』 『불국사서석탑중수행지기』 『일본 육국사』 『일본 삼대실록』

### 2. 저서

고익진, 1989,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출판부.  
김문경, 1986, 『당 고구려유민과 신라교민』, 일신사.  
김복순, 1990, 『신라 화엄종연구』, 민족사.  
\_\_\_\_\_, 2008, 『신사조로서의 신라불교와 왕권』, 경인문화사.  
\_\_\_\_\_, 2016, 『신라 사상사 연구』, 경인문화사.  
김상현, 1994, 『역사로 읽는 원효』, 고려원.  
김종명, 2001,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 :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 문학과지성사.  
김형우, 1992,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윤진, 2006, 『고려시대 왕사·국사연구』, 경인문화사.  
小野勝年, 1964,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2)』, 鈴木學術財團.  
앤닌 저, 김문경 역주, 2001, 『앤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사.

### 3. 논문

강호선, 2015, 「고려시대 국가의례로서의 불교의례 실행과 그 정치적 의미」, 『동국사학』 59.  
김복순, 2006, 「수·당의 교체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43.  
\_\_\_\_\_, 2009, 「삼국유사 효선쌍미」,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4.  
\_\_\_\_\_, 2016, 「의정의 『대당구법고승전』과 신라인」, 『신라문화』 45.

- 김상현, 1976, 「고려시대 호국불교연구 - 금광명경신앙을 중심으로 -」, 『학술논총』 1, 단국대학교.
- \_\_\_\_\_, 1996, 「『추동기』와 그 이본 『화엄경문답』」, 『한국학보』 84.
- 바스웰, 1988, 「Did Wonhyo write Two Versions of His Kumkang SammaeguonRon?」, 『제5회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광연, 2008, 「신라 증고기의 법화사상」, 『한국사상사학』 31.
- 안휘준, 2012, 「率居: 그의 신분, 활동연대, 화풍」, 『미술사학연구』 274.
- 양정석, 2000, 「신라 황룡사·북위 영녕사 그리고 일본 대관대사 - 5-7세기 동아시아 도성제와 관련하여 -」, 『한국사학보』 9.
- 이기백, 1978, 「황룡사와 그 시대」, 『신라시대 국가불교와 유교』, 韓國研究院.
- 이기영, 1975, 「인왕반야경과 호국불교」, 『동양학』 5.
- 이병희, 2004, 「고려시기 낙성행사의 設行」, 『문화사학』 21.
- 허인욱, 2014, 「『삼국유사』 황룡사구층탑조의 편년문제」, 『사학연구』 113.

Buddhist Lecture Meeting in  
Hwangnyongsa Temple  
- In Relation to Two Type of Buddhist Lecture  
Meeting in Silla Dynasty -

Kim, Bok-Soon

Buddhist lecture meeting (Ganggyeong-BeopHoe) was held many times at the lecture hall of Hwangnyongsa Temple for 685 years, from 553 when it was built in the reign of King Jinheung in Shilla dynasty to 1238 when it was completely destroyed by the invading Mongol army in the late period of Goryeo Dynasty. Buddhist lecture meeting was held on a national scale at Hwangnyongsa Temple, a national temple in the capital of Silla Dynasty, and the records of Buddhist lecture meeting performed by monk Won-Gwang, Ja-Jang and Won-Hyo remained.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ses of Buddhist lecture meeting held at Hwangnyongsa Temple according to “each period of kings” in Silla Dynasty. Second, this study addressed preparation and progress of Buddhist lecture meeting at Hwangnyongsa Temple. Buddhist scripture was selected as a text for the meeting, and a clear purpose was established such as curing King’s diseases or prosperity and welfare of the country. Then, “participants for” the meeting were selected and a camp was set up at the lecture hall or yard of the temple after Ganggyeonan (plan for lecture meeting) was made by a lecturer who was selected for the meeting. After picking the date for the meeting and inviting monks and Bodhisattvas(the laity) to attend the meeting, the order

of the meeting was organized in consultation with Buddhist rector and the meeting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order. Finally, this study investigated types and changes of Buddhist lecture meeting in Silla dynasty. There were two types of Buddhist lecture meeting: In national temples including Hwangnyongsa Temple, Ganggyeonan was prepared for king and ministers, but in other Buddhist lecture meetings performed by Eui-Sang, Seung-Jeon and Jin-Pyo, their disciples prepared lecture materials after the lecture. The Buddhist lecture meeting at Hwangnyongsa Temple was originally national-scale meeting led by monks of dogmatic Buddhism, but it was formalized and finally showed a changes of integration of dogmatic and Zen Buddhism under the influence of Zen Buddhism at the end of Silla dynasty.

Key Words : Lecture Hall of Hwangnyongsa Temple, Buddhist Lecture Meeting of Hwangnyongsa Temple, Types of Buddhist Lecture Meeting in Silla Dynasty, Ganggyeonan, Integration of Dogmatic and Zen Buddhism, Won-Hyo